●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도코나메(지금의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제작된 큰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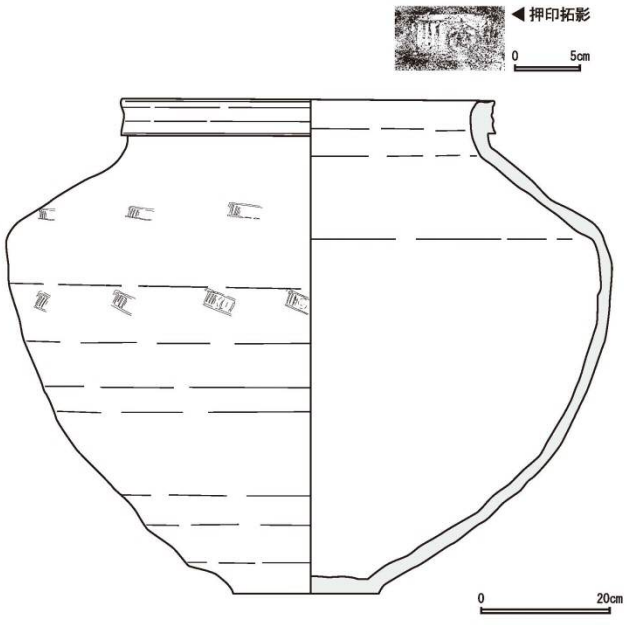
이 큰독은 15세기경에 지금의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제작되어, 머나먼 시나가와까지 실려 왔습니다. 이 독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시나가와까지 실려왔고, 무엇에 쓰였을까요?

독에 대하여

이 큰독은 일부가 아주 조금 떨어져 나갔지만, 보존 상태는 지극히 양호합니다. 안쪽에는 구멍과 금을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있고, 아가리 아래의 잘록한 부분에는 철사가 감겨 있습니다. 크기는 아가리 지름 58cm, 가장 큰 부분의 지름 94cm, 바닥 지름 22.8cm, 높이 74.8cm입니다.

큰독은 맨 먼저 바닥 부분을 만들고, 다음으로 점토를 가늘게 띠 모양으로 늘인 것을 아래에서부터 나선 모양으로 말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몸체 겉쪽에는 사선 방향으로 표면을 고른 흔적이 있으며, 아가리 주변은 가로 방향으로 정성껏 고른 흔적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손가락으로 누른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직경이 가장 넓은 부분을 따라 두

▲도코나메의 큰독(시나가와 역사관 소장)



▲큰독의 단면

바퀴에 걸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독은 어떻게 시나가와에 들어왔을까?

1980년에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에서 토지 개발에 따른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이 큰독을 시나가와구에 기증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이전에 이미 큰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세기부터 15세기경에는 일본 각지를 잇는 물자 유통이 발달하여, 간토 지방에도 태평양 쪽을 통행하는 배에 의해 서쪽 지역의 물자가 대량으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시나가와는 항구도시로서 발전해 있었으며, 각지에 물자를 운반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이 큰독도 상품으로서 매매되어, 아이치현 부근에서 태평양 항로를 거쳐 시나가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다마가와 강 유역에서도 비슷한 독이 출토되었으며, 항구도시였던 시나가와와의 관련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은 언제 만들어져, 무엇에 쓰였을까?

선행 연구로 보아 큰독은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은 물 등을 저장하는 용기로 쓰인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경전이나 시신 · 유골 및 돈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